

“극자외선 D램 시대 개막 더 큰 미래 꿈꾸게 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2018년 착공후 총 3조5000억 투입
EUV 장비 도입...미세공정화 앞당겨
하반기엔 4세대 10나노급 D램 생산

“M16 준공은 경제적 가치 창출은 물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도 기여하는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생산 기지가 될 것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SK하이닉스가 자체 생산 시설 최대 규모의 M16 공장을 준공했다. 2018년 11월 착공 이후 총 3조5000억 원, 연인원 334만 명이 투입됐다. 건축면적 5만7000㎡로 축구장 8개 크기이며 길이 336m, 폭 163m, 높이는 아파트 37층에 달하는 105m로 조성됐다. 본격적으로 D램 반도체 생산에 극자외선(EUV) 노광 장비가 도입돼 메모리 반도체의 미세공정화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EUV 공정은 반도체 포토 공정에서 극자외선 파장의 광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기존 불화아르곤(ArF)의 광원보다 파장의 길이가 짧아(10분의 1 미만) 반도체에 미세 회로 패턴을 구현할 때 유리하고 성능과 생산성도 높일 수 있다.

SK하이닉스는 최첨단 인프라를 기반으로 M16 공장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키워낸다는 계획이다. M16에는 올해 EUV 장비 2대가 설치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하반기부터 4세대 10나노급(1a) D램 제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We Do Technology 행복을 열다”를 주제로 1일 경기도 이천 본사에서 열린 준공식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해 최재원 수석부회장, 조대식 SK수펙스추진협의회 의장, 박정호 SK하이닉스 부회장, 장동현 SK 사장, 이석희 SK하이닉스 CEO, 하영규 선임사외이사 등 핵심 인사 16명이 참석했다. 구성원과 협력회사 직원들은 화상 연결을 통해 언택트(비대면)로 행사에 참여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반도체 경기가 하락세를 그리던 2년 전 우리가 M16을 짓는다고 했을 때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하지만 이제 반도체 업사이클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어려운 시기에 내린 과감한 결단이 더 큰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해줬다”고 밝혔다. 이어 “M16은 그동안 회사가 그려온 큰 계획의 완성이자 앞으로 용인 클러스터로 이어지는 출발점으로서 중요한 상징으로 남을 것”이라고 의미를 전했다.

한편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1일 열린 서울상공회의소 회장단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차기 서울상공회의소 회장에 추대됐다. 최태원 회장은 “추대에 감사드립니다”며 “상외와 국가 경제를 위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습니다”고 밝혔다. 2월 23일 서울상의 의원총회에서 서울상의 회장으로 최종 선출될 예정이며, 관례상 서울상의 회장이 겸하는 대한상의 회장은 3월 24일 대한상의 의원총회에서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상의와 대한상의 회장 임기는 3년이며 한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정용문 기자 sadzoo@donga.com



스포츠동아

2021년 2월 2일 화요일
www.sportsdonga.com

캠프 찾은 신세계 임원진 ‘원팀 스킨십’

강산 기자의 스프링캠프 리포트 | SK 와이번스 제주 스프링캠프에 가다



신세계그룹 이마트에 인수된 SK 선수단을 향한 관심이 뜨겁다. 2021시즌을 여는 스프링캠프가 시작된 1일 서귀포 강창학공원야구장에는 수많은 미디어가 몰려들어 열띤 취재경쟁을 벌였다. 신세계그룹 임원진도 전격적으로 현장을 찾아 선수들을 격려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내야수 오태곤(24번)이 실내연습장에서 배팅훈련에 열중하고 있다. 서귀포 | 주현희 teth1147@donga.com

신세계 부사장 등 4명 깜짝 방문
선수 복지·투자·팬들과의 호흡 등
새로운 명문구단 도약 지원 약속
FA 이적생 최주환 뜨거운 환영
김원형 감독 “제주 캠프 환경 굿”

했다. 프리에이전트(FA) 자격을 얻어 SK로 이적한 최주환은 동료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기도 했다. 선수들은 “준비한 대로 캠프를 진행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김 감독의 주문대로 훈련에만 집중했다.

●신세계그룹 임원진의 깜짝 격려 방문

첫날 훈련을 앞두고 신세계그룹 임원진이 현장을 방문했다. 구단 인수를 담당하는 부사장 2명과 이들을 수행하는 부장 2명 등 총 4명이 김 감독과 주장 이재원을 비롯한 선수단과 만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1월 29일 SK 구단을 방문해 직원들과 정보를 공유했던 신세계그룹 관계자들의 방문과 격려에 선수단도 한층 힘을 얻은 듯했다.

이재원은 “(신세계그룹 관계자들이) 선수들의 복지를 비롯해 적극적인 투자, 팬들과 호흡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다. 그만큼 기대가 크다”며 “선수들은 어찌됐든 야구를 계속해야 하는 입장이다. 새로운 명문 구단으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동료들과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동석했던 SK 류선규 단장은 “신세계그룹 측에서

선수들에게 그룹을 소개하고 야구단 인수 배경 등을 설명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스프링캠프에 쏠린 시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올하는 전 구단이 국내에서 스프링캠프를 진행한다. SK의 베이스캠프인 제주도는 날씨 측면에서 타구단들과 견주어 사정이 나은 편이다. 김 감독은 “다행히 제주도는 기온이 높은 편이라 타 지역에 비해 한결 낫다. 그리 크진 않아도 실내연습장이 있어 훈련환경도 괜찮다. 첫날은 비가 와서 아쉽지만, 내일(2일)부터는 정상적으로 훈련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원과 김강민은 일찌감치 제주도에 개인훈련을 하며 현지 적응을 마친 상태였다. 이재원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조금 추울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날씨가 정말 좋다. 운동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설명했고, 김강민도 “일찌감치 제주도에 와 있었는데, 날씨는 좋다. 바람 영향만 받지 않으면 해외와 비교해도 날씨 측면에서 크게 다른 점은 없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서귀포 | posterboy@donga.com

남자의 건강기능식품

CJ 전립소

전립선 건강은 물론, 정상적인 면역기능,
항산화, 에너지 활력까지! 100% 미국산 쏘팔메토

- 기능성 원료인 쏘팔메토의 인체시험 결과 테스토스테론(남성호르몬) 증가, 야뇨/소변속도 개선, 남성 삶의 질 개선 확인
- 국내 최초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기능성 인정
- 미국 FDA 안전성 기준 충족 프리미엄 원료 사용



CJ 전립소 쏘팔메토 파워

벤케어파워 옥타코사놀 3개월분 증정

CJ제일제당 건강카운셀러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080-722-9988